

淳昌趙氏와 玉川趙氏와의 관계

대중회 회장 趙 德 善

순창조씨와 옥천조씨 양파의 계통을 하나로 묶고 하나의 족보속에 한가문을 이룩하려는 노력은 지금으로부터 약200년전 임술보(壬戌譜)를 편찬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근래에 와서 결집된 결론은 “여러가지 정황(2항 참조)으로 보아 양파는 하나의 뿌리이며 같은 조상이다”라고 일단 확인은 하였으나 핵심적인 합보문제는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정확한 문헌이나 보편 타당성 있는 입증자료 없이 추정(推定)만으로 합부로 합보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양파가 과연 동조지손(同祖之孫)이라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합보하는 것이 필연적이며 너무나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이 현안해결을 위해 200년 동안이나 노심초사한 보람도 없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자리 걸음만을 거듭해 온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어쩐지 자꾸만 두파의 합보는 숙명적으로 영원히 숙제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앞을 가리니 이는 나혼자만의 지나친 기우일까? 이 숙원을 언제 누가, 어떻게 시원하게 풀 것인지 앞이 어둡고 아득하게만 느껴 지금까지의 경위를 대강 기술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합보문제에 대하여 족보에 수록된 내용

가. 임술보(1802년) 발문에 의하면 “순창에 동종(同宗)이 번성하다는 말을 듣고 장차 수단하여 합보할 계획으로 重春(22세, 성종)과 陽鎭(23세, 이안) 두분을 사전에 순창으로 보내어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다만 玉川君을 시조로 삼는다” 하므로 합보를 못하게 되어 심히 한이 된다”라고 기술된 점으로 보아 호서파에서는 족보를 처음 편찬할 때 합보하려고 적극 노력하였으나 호남파의 견해차이로 뜻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나. 계유보(1933) 발문에는 “전라도 玉川君파가 합보 아니 하는것은 그 유래가 오래이므로 논하지 말자”라고 아쉬움을 간직하고 체념하였으며,

다. 계묘보(1963) 서문에는 “玉川君파와 합보하지 못한것은 문헌이 부족한 때문이니 한탄을 금치 못한다”라 하고 발문과 순창군 연혁에는 진신보(緝紳譜)에 전라도파의 璋(옥천조씨의 시조)께서는 우리 선조 光肅(일명 光明 6세)과 형제가 되시는것 같으니 훗날 다시 상고바라다 라고 또다시 아쉬움과 후세에 기대하였다.

2. 동출일계(同出一系)란 사실을 확인한 정황

서울 우이동에서 1970. 8. 16. 趙炳浚(호남), 趙寬植(풍곡), 趙鍾鎭(마진), 趙鏞樂(평택), 趙冕植(담동), 趙斗淵(평택) 등을 비롯해서 19명의 양파대표가 모임을 갖고 계통문제를 논의한후 합의 작성한 본전의록(本傳議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파는 동조동근(同祖同根)임을 확인하였다.

가. 호서 호남 양파가 다같이 본관(순창조씨)이 동일하다는 사실.

나. 순창조씨의 大護軍公(7세 文琮)과 옥천조씨의 侍中公(옥천조씨의 시조 璋)을 위시해서 누대의 이름자가 다 같이 玉자변을 택한 사실 (제3항 가상세계도 참조)

다. 순창조씨의 平章公(6세 光明)의 묘소가 순창에 계셨다는 사실(자손록에 “묘는 순창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고향에 있다고 한다”라고 수록되어 있으며 세보상에 순창조씨와 순창을 연관시킨 내용은 추상적인 이 한구절이 전부이다.)

라. 순창조씨의 文貞公(8세 廉)께서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순창 인물편에 기록된 사실.

마. 순창조씨의 良度公(9세 縫)을 淳城君으로, 옥천조씨의 農隱公에게 玉川府院君에 봉한 사실(옥천은 순창의 별호로서 양파의 어른들이 같이 순창에서 생활했다고 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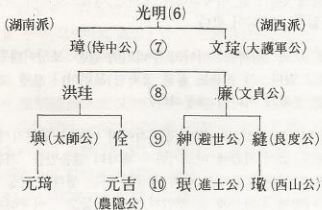
라. 호서에서 호남에 합보를 찾았을때 순창조씨의 大護軍公(7세 文琿)과 옥천조씨의 侍中公(옥천조씨의 시조璋)을 형제분으로 기록된 사실.

사. 大護軍公의 손행인 良度公과 侍中公의 손행인

太師公의 생졸과 입사년대가 거의 같다는 사실.

아. 良度公의 아드님이신 西山公과 太師公의 조카인 農隱公의 입사 및 벼슬을 버리고 락향한 년대가 거의 같다는 사실 등이다.

3. 가상합보세계도



순창조씨의 뿌리

④ 역대주요인물 (조선조)

⑪ 道學과 文章이 뛰어나고 漢城左尹에 증직된 15世 趙勝(1517-1584)

자는 克己요 호는 安士堂이다. 乘節校尉 副司果를 지내고 손자 趙塾의 현달로 漢城左尹이 증직되었다.

참고 1. 안촌, 쌍곡, 지곡, 문경, 이안, 성중, 풍곡, 문동, 동막, 진천, 판승과의 직조로서 29세손 "柱" 항렬 기준 14대 조고이다.

2. 自作詩(書堂에서)

誰人斷破千年秘 閑築藏修屋數楹
絕祭烟霞曾不俗 一區風物可無情
雲烘彩棟晴虹影 岳碎章編夜讀聲
喚起晦翁將住此 武夷何必獨專名

(천년 간직한 신비한 이곳을 그누가 파헤쳐 한가롭게 두어간 초당을 잘도 세워 놓았네, 절벽의 은은한 안개속은 속됨이 없고 봄바람에 환하게 핀 꽃동산은 가히 무정한듯 하구나 채색 안개는 있다 없다하고 한가로이 흰구름만 오고

는데 산천이 울리는 아름다운 소리는 맑은 밤에 들리는 소리이다.

朱文公이 장차 이곳에 머무른다면 武夷山 홀로 명예를 누릴수 있오라)

⑫ 文科에 급제하고 京試官으로 湖西의 試를 도맡은 17世 趙鈇

(1558~1618)

자는 國耳이며 선조34년(1601) 司馬試에 급제하고 이어서 광해2년(1610)文科에 올랐다. 戶曹正郎을 지냈으며 司憲府持平에 이르러 京試官으로 湖西의 試를 도맡았다.

참고: 평택, 서산과의 직조로서 29세손 "柱" 항렬기준 12대 조고이다.

⑬ 崔汝獻의 亂을 토벌한 공으로 寧社原從功臣에 오른 16世 趙德容

(1564~1638)

자는 汝潤이며 栗谷선생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시와 서예에 뛰어났으며 栗谷이 그 인품됨을 높이 평가하여 조카사위로 삼았다. 齊郎, 別坐를 거쳐 金泉道察訪을 지냈으며 인조6년(1628) 토적 崔汝獻이 호서지방에서 흉모를 내외에 선동하고 부근의 고을을 모두 침략하기에 이르러 17世 趙圻와 더불어 출전하여 이를 토벌한 공으로 寧社功臣에 올라 피산 문파 七忠祠에 제향되었다.

참고: 장춘, 이곡과의 직조로서 29세손 "柱" 항렬기준 13대 조고이다.

⑭ 吏曹參判에 증직된 西涯 柳成龍의 사위 17世 趙稷(1575~1639)

자는 汝馨이며 西涯 柳成龍의 사위이다. 선조29년(1596) 四山監役을 역임하고 主尚衣簿, 戶曹佐郎을 거쳐 선조36년(1603)에 比安縣監을 지냈다. 그후 主廣興簿, 開慶宰, 內資主簿, 刑曹, 戶曹, 吏曹佐郎 泰仁縣監(1623), 翊衛司司禦(1626), 典牲主簿, 尚衣判官, 工曹正郎, 宗親府典簿등을 두루 경력하고 장남 壽益의 현달로 吏曹參判이 증직되었다.

참고: 여주, 단양, 예천, 상주와의 직조로서 29세손 炳, 丙, 雙 항렬기준 12대 조고이다.

⑮ 극진한 효심에 천지신명도 감동한 효자 18世 趙是慶(1582~1644)

자는 士嚴이요 호는 竹隱이다. 인조원년(1623) 司馬試에 급제하고 인조4년(1626) 司憲府 掌書이 제수되

있으나 “아버이 늙으셨으니 봉양할 날이 없다. 가고 벼슬길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인조 23년(1645) 아들 趙潛의 壽貴로 戶曹判書에 증직되었다.

10여년에 걸쳐 어머니를 지성으로 간병하였으나 선조 40년(1607)에 이르러서는 백약이 무효이고 병환은 더욱 위독하였다. 이때 의사의 딸이 “두꺼비 고기가 주효하다”하니 이를 구하고자 밤낮으로 일을 삼았으나 구할 길이 없어 울먹이며 돌아오는데 백설속에서 언덕이 터지며 쌍두꺼비가 나와 어머니의 병을 쾌유시키나 있다.

또한 광해원년(1609) 어머니의 병환이 재발하여 목욕 재계하고 월여에 걸쳐 하늘에 기도하니 어느날 꿈속에서 신령이 나타나 “너의 효성에 감동하는 바라”하고 약한 봉지를 주고가니 이꿈이 신비하게도 현실로 나타나 이약을 복용시켜 쾌유한바 있다.

한때는 竹隱公이 의사한테 다녀와서 부인 陽城李氏에게 어머니의 병세를 물은즉 “차도가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차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재차 물은즉 “똥을 맛보았다”라고 대답하니 세상사람들은 효자집에 효부났다고 칭송이 자자하였다.

광해 12년(1620) 어머니의 병환이 또다시 재발하니 공은 손가락을 끊어 피를 흘려 어머니 입에 넣어 몇일간 목숨을 연장시킨 효자의 본보기이다.

참고: 안축, 쌍곡과의 직조로서 29세손 “柱” 항렬기준 11대 조고이다.

⑬ 文科에 급제하고 加平郡守를 역임한 17世 趙塤 (1583~1666)

자는 士和이며 광해 5년(1613) 司馬試에 급제하고 이어서 광해 8년(1616) 文科에 올랐다. 司書, 說書, 正言, 校理, 嶺南御使, 書狀官 등을 두루거쳐 加平郡守를 경력하였으며 壽資로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를 제수받았다.

참고: 장춘파의 직조로서 29세손 “柱” 항렬기준 12대 조고이다.

⑭ 崔汝獻의 亂을 토평하고 寧社 一等功臣에 오른 17世 趙圻 (1584~1661)

자는 子安이요 용맹과 지략이 뛰어나다. 인조 6년(1628) 토적 崔汝獻이 호서지방에서 흉모를 내외에 선동하고 부근의 고을을 모두 침략하였으나 괴산 국수는 이를 토벌할 인제가 없어 고심하던중 초야에 있는 공께서 용맹과 지략이 비범함을 알고 세번 찾아 토적하여 줄것을 요청하고 영에 보고하여 軍節에 배하므로

서 중록부 趙德容과 더불어 이를 토벌하기에 이르렀다.

한번 싸워서 토적을 산골로 쫓고 두번 싸워서 양도를 깔고 세번 싸워서 우두머리를 베니 잔당은 자연 풍지박산되어 완전 섬멸하기에 이르렀다. 난적을 토벌한 후 조정에서 논공행사 공께서 자신의 전공을 감추니 국수는 이를 모두 자신의 공으로 상달하여 승진하였으나 그 후 본도어사가 탐지하여 삭탈관직하고 공은 寧社一等功臣에 올라 괴산 문광 七忠祠에 제향되었다.

참고: 지곡, 문경, 기성파의 직조로서 29세손 “柱” 항렬 기준 12대 조고이다.

⑮ 仁祖, 孝宗, 顯宗 3朝廷에 걸쳐 충직과 정의로 보필한 18世 趙壽益 (1596~1674)

자는 士靜이요 호는 晚閑堂이며 시호는 文簡公이다. 인조 2년(1624) 進士 및 生員 양시에 장원하고 인조 8년(1630) 連原道察訪을 경력하였다.

인조 11년(1633) 增廣文科에 등제한후 丞文院權知, 藝文院檢閱, 奉教侍教 겸 侍講院 說書를 지냈다.

인조 13년(1635) 司諫院 正言으로 있을때, 사은삼배 하는 자리에서 柳孝立의 역적행위에 연루되어 귀양간지 10년이 된 仁城君의 자녀를 용서하고 석방할것을 간곡히 상소한 것이 환관이 되어 兩司로부터 역적의 자녀를 비호한다는 구실로 삭탈관직을 청하는 등의 시련이 있었으나 은총으로 용서받고 함경도 암행어사로 나간바 있다.

인조 14년(1636) 兵曹佐郎 겸 知製錢을 거쳐 兵郎으로서 正言으로 있을때 丙子胡亂의 국난을 맞아 조의에서 江都로 행사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임금이 궁을떠나기 전에 적이 임박하므로 군신이 어찌할바를 모르고 우왕과양왕 때 공께서 南漢城 행행의 타당성을 역설하고 간청하여 받아들여 졌다. 그러나 또다시 江都로 갈것을 조신이 청하여 은밀히 떠나려는데 공이 이를 알고 이에 부당성을 지적하고 만류하였으나 야만에 성문을 나오다 임금의 건강상 결행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때 “和議”와 “守城” 두 견해가 대립되었으나 공께서는 “수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이를 관철하고 奮戰御使의 책임을 맡아 校理 李時楷와 더불어 동 성에 있는 望月台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다 파로로 병을 얻어 직무를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인조 15년(1637) 獻納으로 있을 때 “和議”가 결정되고 난세의 혼란한 시국을 맞아 군율과 기강확립, 공명정대한 정사, 직언의 불신풍조개선, 형벌의 공정, 관직의 권위신장 등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소상하고도 강력하게 상소하여 난후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는데 진력하였으니 이를 “亂後第一疎”라 한다.

인조 15년(1637) 吏曹佐郎을 배한후 陪行御使의 소

금을 다하고 그후 獻納, 銓部, 吏曹正郎, 應教, 校理, 執義, 司諫, 錦山郡守 등을 두루 경력하였다.

인조23년(1645)世子冊封奏議使書狀官으로 燕京에 다녀오고 다음에 尚州牧使, 인조25년 同副丞들로 慶尙監司, 인조27년 戶曹參議, 大司諫, 副提學, 효종원년(1650) 右丞 등으로서 大司成을 지냈다.

효종2년(1651) 吏曹參議를 거쳐 大司諫으로 있을 때 영상 金增이 불법으로 잘못 시행한 科擧를 지적하여 직언한 것이 화근이 되어 趙貴人(인조의 후궁)의 옥사 사건지리를 기피하였다는 빌미로 단양으로 1년한정 유배의 시련이 있었으나 다시 용서받고 효종4년 재차 大司諫, 副提學, 右丞, 京畿監司, 松都留守, 吏曹參判을 두루 경력하고 효종7년 大司憲을 지냈다.

효종10년(1659) 兵曹參判으로서 國葬都監 提調를 겸하고 현종2년(1661) 大司諫을 배하였으며 이때 대왕대비 服制禮論으로 宋時烈과 尹善道가 “宗統” “統統”을 각각 달리 논하여 判中樞 趙綱이 宋時烈에 동조하다 마침내 귀양가게 되니 공에서 그 부당성을 직언으로 상소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였다.

현종14년(1675) 耆老所有司堂上(종2품)에 오르고 吏曹判書, 弘文館, 藝文館大提學에 추증되었다.

공께서는 정백한 석학거유로서 나라가 혼란속에 있을 때 직언으로 충과 의를 다하였으며 당쟁에 초연 하였다. 만년에는 驪江으로 은퇴하여 강북 기슭에 정자를 세워 晚閑亭이라 환관과 자호하고 단장 끌고 집신고 소요하며 풍월을 벗삼았다.

참고: 여주, 단양과의 직조로서 29세손 炳, 丙 형렬 기준 11대 조고이다

행정과 종친회 정기총회

- 친목과 유대 더욱 굳게 다지다 -

행정과 종친회에서는 정기총회를 1994. 8. 14. 피산 송평에서 많은 일가들의 참여리에 성대히 개최하여 친목과 유대를 더욱 굳게 다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태국 총무의 경과보고와 조태회 회장의 인사에 이어 조덕선 대총회장으로 부터 뿌리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 행정파인원현황(남자)

생년	항	번	善	泰	湜	柱	炳	계
1934년 이전 출생자 (61세 이상)	3	4	2	2				11
1935~1944 (51세~60세)		5	3	3				11
1945~1954 (41세~50세)	10	3	7	1	21			
1955~1964 (31세~40세)	9	8	5	4	26			
1965~1974 (21세~30세)	1	13	4	13	31			
1975년 이후 (20세 이하)			21	9	8	38		
계	3	29	50	30	26	138		

== 종친의 동정 ==

청주파 趙致湜 이학박사

- 미국에서 박사학위 취득 -

미국 벨렌드 주립대학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였다. 앞으로 1년간 서울대학교 대역 해석학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행정파 趙戊柱 국민일보전국부 차장

- 詩集과 長篇小說 발간 -

충청일보 문화부 기자를 거쳐 현재 국민일보 全國部次長으로 재직중이면서 월간(문예사조) 신인상 당선으로 등단 이후 수필 「한국의 향수」 「남한강」 「기자 25시」를 집필하였다. 장편소설로는 「모두 두고 떠나갈결 사랑은 왜」 등을 집필하고 금년 7월에는 「가슴에 지핀 그리움」이라는 詩集을 발간하였다.

희비남부 하신분 (94. 6. 1~94. 8. 31)

행정 조태명 30,000, 행정 조달식 25,000, 청주 조동선, 청주 조정선, 청주 조기선, 문경 조영윤, 기성 조창선 각 20,000, 문동 조홍식 10,000, 지곡 조태형 5,000(94년분), 탐동 조삼재 15,000, 원흥 조태득 20,000(선불금) 합계 205,000원



1. “순창조씨의 주소록” 발간

“순창조씨의 주소록”을 발간해서 집집마다 보내 드리 고자 합니다. 이번 발간하는 주소록은 족보를 기준으로 1971년 이전 출생자 전원을 세계순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소록 발간을 가급적 지양할 예정이므로 이번 에 누락되거나 잘못되면 추가주소록이 어려우니 대상자 전원의 주소록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1994. 10. 31까지 등록 바랍니다.

2. 회비독촉

지금까지 희비남부대상자의 3분의2에 해당하는 분이 회비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1994년과 1995년(2년) 회비를 수납할 예정이니 밀린 회비는 금년말 까지 정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송금구좌	우체국	011775-0046769-11	
	농협	067-01-221618	조덕선
	국민은행	025-01-0315-181	

※ 송금자 명의로 필히 파를 명시 바랍니다.